

각위

2022년 2월 24일
SBI비즈니스솔루션즈

경리담당자 80%가 종이를 이용한 아날로그식 청구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

~SBI 비즈니스솔루션즈가 청구서 관련 업무의 DX와 인보이스 제도 관련 조사 실시~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이하 「당사」)는 청구서 관련 업무의 DX 및 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조사*1를 경리·회계·재무 담당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1 【조사 실시 개요】실시 위탁사 : 주식회사 저스트시스템(인터넷 리서치 서비스 'Fastask'에서 실시) / 조사기간 : 2022년 1월 28일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개요 : 청구서 관련 업무의 DX에 관한 조사 / 조사대상 : 경리·재무·회계 담당 실무자 441명

■ 조사 개요

- 「청구서 관련 업무(청구서 작성, 발송, 입금확인, 독촉, 회계처리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종어로 인쇄하는 아날로그식 사무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리담당자는 77.4%
- 청구서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스템 개발·도입 비용」
-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리담당자는 34.2%

■ 조사 배경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시행 직전 유예조치가 발표된 전자장부보존법(2022년 1월 시행)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경리담당자를 둘러싼 환경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인보이스 제도*2와 2024년 1월 전자보존 의무화*3 등을 대비하여 경리 현장의 DX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3년을 「다양한 법·제도 개정을 바탕으로 경리의 DX화를 크게 진전시키

는 한 해」=「경리DX원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리DX원년」에 앞서, 2022년 현시점에서의 경리 업무 DX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보급률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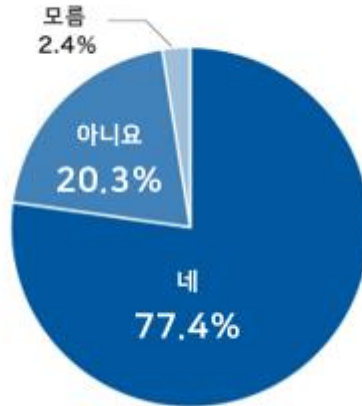
* 2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보존방식) 제도] 2023년 10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 관련 제도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등의 보존이 요건화 되었다.

* 3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그동안 전자보존 도입의 걸림돌인 세무서장 사전승인제도가 철폐되고 타임스탬프 요건도 대폭 완화 되는 한편, 전자거래의 전자보존이 의무화되어 인쇄물 보존이 세무상 허용되지 않는다.

■ 조사 결과

【청구서 관련 업무의 DX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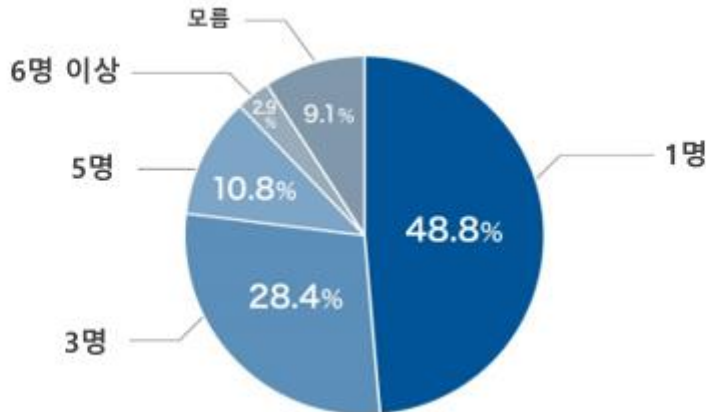
Q1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청구서 관련 업무에 종이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n=424)



SBI Business Solutions

경리담당자에게 청구서 관련 업무 중 종이 인쇄물을 사용하는 업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77.4%가 「네」라고 대답하여 경리담당자의 약 80%가 아날로그식의 사무처리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2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청구서 관련 업무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n=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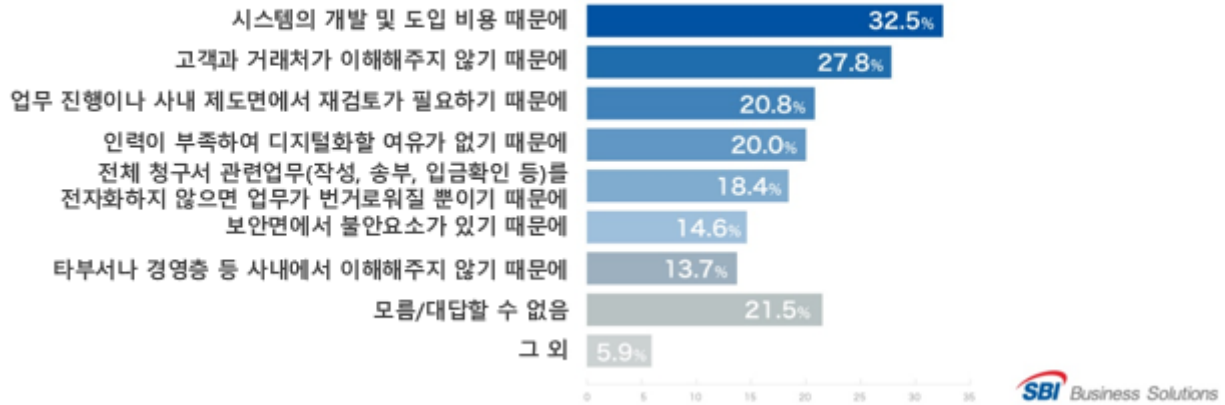


SBI Business Solutions

다음으로, 청구서 관련 업무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 가량인 48.8%의 응답자가 「1인」이라 응답해 청구서의 작성과 발송, 입금확인, 입금 독촉과 분개 계상과 같은 다양한 관련 업무를 담당자 혼자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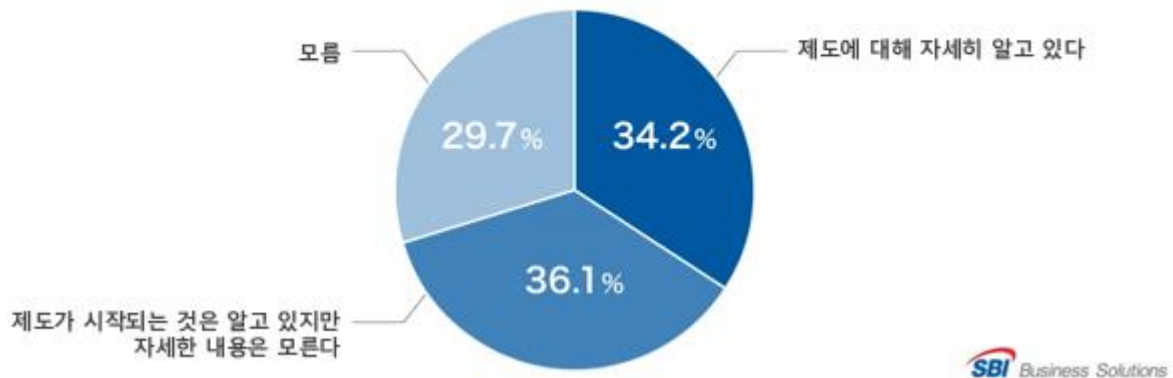
Q3 청구서 관련업무의 디지털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n=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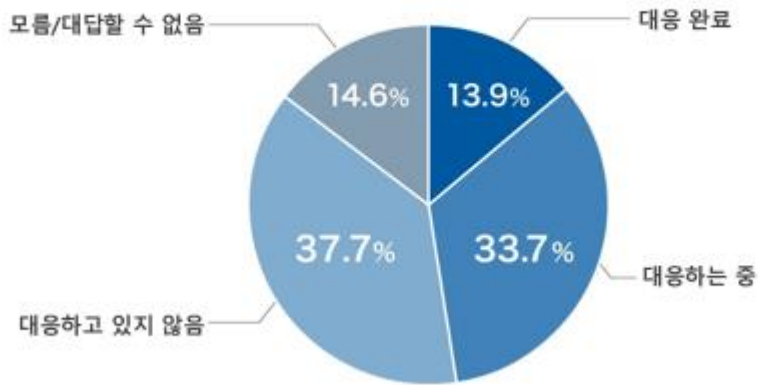
청구서 관련업무의 디지털화가 아직 진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 비용 때문에」가 32.5%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것 외에도 ‘비용 대비 효과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거래처가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가 27.8%, 「업무 진행이나 사내제도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20.8%로, 비용 이외에도 이해나 제도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 당신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n=424)



또한, 2023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에 그쳐, 29.7%가 아직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Q5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n=424)



SBI Business Solutions

마지막으로 인보이스 제도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완료」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3.9%로 약 10%에 그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기업이 언젠가는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머지 90%의 기업도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이 예측됩니다.

■ 총론

이번 조사로 경리담당자의 약 80%가 아직 종이 서류를 이용한 아날로그식 청구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적한 경리현장이지만, 전자보존 의무화 및 인보이스 제도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경리DX원년」을 대비하여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 세미나의 실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전자보존 도입과 경리 업무의 DX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클라우드형 청구서발행시스템 「청구QUICK」 개요

「청구QUICK」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청구서발행시스템입니다. 청구서를 웹에서 작성·승인·발행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입금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소프트 연계로 청구서발행과 관련된 사내의 업무 플로우를 명확하게 하여 청구서발행부터 입금확인, 회계처리까지의 작업을 효율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구QUICK」 전용 사이트(<https://seikyquick.sbi-bs.co.jp/>)를 참조해주세요.

무료등록 사전접수: <https://seikyquick.sbi-bs.co.jp/trial/>

< 「청구QUICK」 운용 이미지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의 중추인 경리담당자를 위하여 백오피스 업무의 DX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진심으로 대응하여 백오피스 차원에서 경영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력이나 자금과 같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당사 개요

- 회사명 :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 설립 : 1989년 9월
-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 URL : <https://www.sbi-bs.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